



“발주자 최고의 감동실현, CM의 약속입니다.”

한 국 CM 협 회

수신자 : 회원사 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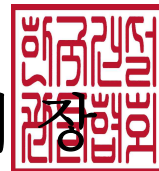
참 조 : CM담당 본부장

제 목 : 제2차 한·미CM 포럼 TF팀 회의 개최 결과 안내

2011 제2차 이사회(2011. 5. 27)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제2차 한·미 CM포럼의 효율적 진행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T/F팀을 구성하여 제1차 회의(6. 17)를 붙임과 같이 하였기에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송부하오니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을 오는 6월 24일(금)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(T/F팀 위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오니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.)

붙임 : 제2차 한·미CM포럼 TF팀 주요회의 내용 1부. 끝.

한 국 CM 협 회



과장 강 현 준

시행 정책사업본부 - 160 (2011.6.22)

우 137-844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8-7 유니온빌딩 4층

전화 070-7510-1226 전송 02-585-2689

<http://www.cmak.or.kr>

mailboneyo@cmak.or.kr

제2차 한·미 CM포럼 T/F팀 회의 개최 결과 안내

6월 17일(금) 15시부터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제2차 한·미 CM포럼의 효율적 진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한 제1차 T/F팀 회의(참석자명단 불임) 결과를 요약정리하여 보내드리니 위원들께서는 이를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을 오는 6월 24일(금)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(T/F팀 위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함.)

< 회의내용 >

- 9. 26 오전행사로 양측 대표 현황 발표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음.
- 오후의 비즈니스 미팅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1대1 미팅보다는 양측의 대표업체들과 학계 등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패널토론방식으로 진행하고 Floor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.
- 아젠다는 당사국 시장보다는 제3국 CM시장 동반진출을 위한 협력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
 - 한미CM포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
 - 첫째, 정보교류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고 ,
 - 둘째, 제3 진출 시 미국이인건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신용과 우리의 기술력 있는 인력이 참여하는 방안
 - 셋째, 미국업체와 공동수급을 하거나 또는 Sub-Con으로 참여하는 방안
 - 넷째, 계약 및 리스크 관리 등은 미국이 진행하고, 그 외는 우리 CM업체가 수행하는 등 공동참여하는 경우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추구할 수 있으며
 - 부정적인 측면으로는
 - 첫째, 한·미 FTA체결 등으로 우리나라 CM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으며
 - 둘째, 우리 CM업체들의 역량 미흡 등으로 미 측과 협력할 경우의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이 제시되었음.

- 결론적으로 상호 필요한 아젠다를 갖고 이야기한다면 위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
 - 미국과 동남아 등 제3국 공동진출 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보고
 - 한·미 FTA 발효에 따라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대처하여야 할 사항 등도 살펴보며(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잘 구사하여야 할 것임.)
 - 미국 업체가 시공과 용역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시공사도 참여토록 하고,
 - 본 포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보다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.
- 차기 회의에서는 미팅 방법에 따라 세부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함.

붙임 : 제1차 T/F팀 회의 참석장 명단 1부. 끝

T/F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께서도 비즈니스 미팅 방법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꼭 작성하여 담당자(정책사업본부 강현준과장 Fax:02-585-2689, E-mail:mailboneyo@cmak.or.kr)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>

제2차 한·미CM포럼 TF팀 회의 참석자 명단

	소속	직위	성명	비고
1	한국CM협회	회장	배 영 휘	
2	국토해양부	사무관	서 정 관	
3	동일건축	전무	박 영 배	
4	삼우종합	이사	장 진 호	
5	선진엔지니어링	부사장	하 한 기	
6	영화키스톤	상무	이 태 학	
7	토펙엔지니어링	전무	현 종 철	
8	한국건설관리공사	처장	한 일 동	
9	한미글로벌	전무	이 욱 원	
10	해안종합건축	부사장	오 웅 장	
11	희림종합건축	이사	권 오 성	
12				
13				
14				
15				
16				
17				

※ 순서는 회사명 가나다 순임